

# 統一新羅石塔浮彫像의 研究

張 忠 植

## 一、序 論

佛塔의 表面을 보다 아름답게 裝飾할려는 佛徒들의 종교적 또는 예술적 욕구는 일찍부터 기록되었다. 그것은 불교 발생국 인도에서 비롯되어 그 전파국에까지 유행되었다고 생각되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독특한 浮彫像들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같은 부조상은 方型을 기본으로하는 신라 석탑에 잘 조화됨으로써 신라 특유의 아름다운 석탑을 구축해 나갔다고 하겠다. 그 초기에는 아직 추상적이긴 하지만 사실적 諸像을 동반하였으며 특히 후기에 가서는 이들이 신라 四方佛 신앙과도 연관되어 塔婆의 각면을 장식하였던 것은 신라 磨崖佛 造成, 또는 불교思想性에 입각한 복합적 조사가 기대되는 바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조사 연구는 단순히 석탑이라고 하는 건축적 장엄에 가리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듯하다①. 그간 필자는 신라 부조상 특히 석탑에 나타난 조각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바 있다. 이들 諸像의 形式과 성격, 그들이 지니고 있는 造形的 의미에 남다른 호기심을 지니고서 이들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 풍화로 인한 塔面의 마모는 이들의 형식 파악에 쉽게 접근하기를 저절했다. 동시에 이들 복잡한 부조상에 따르는 불교적 교리 해석이란 좀처럼 해답을 주지 않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八部衆의 造形은 그 형식 파악에 어려움을 더해주면서도 더욱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족하였

다. 따라서 필자 나름대로 이들 諸像이 지니고 있는 신라 석탑과의 연관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써 그 순서를 삼았다. 동시에 그 기능적인 면에 따라 類型分類를 시작하여 이들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물론 그것은 이들 諸像의 敎理 해석에 따르는 성격 파악이 선결되어야 하리라 본다. 대체로 지금까지 파악된 이들 부조상의 類型은 外護的·信仰的·裝飾的 그리고 이들이 합쳐진 複合的 機能으로 분류된다. 그 조각상의 主體는 仁王·四天王·八部衆·十二支·四方佛, 또는 보살공양상, 門扉·眼象 등이다. 따라서 이들 諸像은 신라 석탑의 특징적 형식, 즉 方塔에 준하는 方位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짐작된다. 그중에서도 八部衆의 부조상은 조형적으로도 더욱 복잡하고 그 양식 변천에 있어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그 명칭에 있어서도 經典上으로는 如來八部衆과 四天王에 소속된 八部衆이 있어 이들의 소속과 내용적 해명을 요청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라 석탑이 그 방위에 따르는 造像活動에 더욱有關한 것이라면 이들 諸像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즉 四天王과 八部衆, 그리고 四方佛의 이해에 이들 方位佛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十二支와의 복합적 관계 등은 이들을 上下機能 또는 橫的 관계 속에서 추구되기에 족하다. 따라서 그 조사한계는 類型分類가 곤란한 磨崖佛을 제외한 현존 석탑에 국한하였고 門扉·眼象과 같은 장식적 내용보다는 탑파의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는 諸像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②.

이와 함께 부조상의 성격 및 형식 분류에 따른 양식적 특징에 대한 논의는 신라 석탑의 樣式 및 編年에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무엇보다 모든 造形活動은 어느 것하나 독자적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他者 또는 다른 양식과의 연관 속에서 기록되는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동시에 이같은 조형활동 역시 思想性의 發露라고 볼 때 우리 美術史가 지닌 앞으로의 과제는 더욱 막중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思想性과 造形性의 接合에 대한 佛敎的 解答, 또는 그 변천양식을 살피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써 진행된 데 불과하다. 앞으로 더욱 보완해 갈 것을 각오

하며 우선 석탑 부조상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類型分類에 따른 형식 및 양식변천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 二、浮彫像의 性格과 內容

### 1、新羅石塔과 浮彫像의 關係

신라의 석탑이 塔塔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완성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순수 전탑의 형식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소위 模塔石塔이 있는가 하면 이같은 模造塔 형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양식을 완성한 소위 신라 典型石塔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석탑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있어서 석탑의 표면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浮彫像의 出現은 신라 석탑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같은 浮彫像의 발생은 석탑 건립의 직접적 동기가 되는 舍利信仰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즉 석탑의 內的機能이라 할 수 있는 佛舍利에 대한 神聖과 이를 守護하려고 하는 外的機能이 합일됨으로써 석탑의 표면을 장식하는 몇몇 類型의 浮彫像을 동반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인도의 佛塔이 그 주변에 欄楯을 돌리고 四方에 門(Torana)을 세워 이들 각면에 佛傳說話를 浮彫로써 나타낸 것을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의 석탑은 바로 석탑의 기단과 塔身部에 浮彫像을 나타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인도의 佛塔과는 差別相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인도의 佛塔은 覆鉢形임에 비하여 신라의 석탑은 二重基壇 위에 놓이는 層塔으로써 그 眞面目을 삼고 있다. 또 신라의 석탑이 方形의 平面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면 四方에는 이에 알맞는 造形을 등장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석탑의 각면과 조화를 찾을 수 있는 仁王이라든지 四天王·八部衆·四方佛 심지어는 十二支神像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형을 등장시키기에 이른다. 이들은 신앙적 기능을 강조하는 조형도 있지만 한결같이 佛舍利의 神聖에 대한 守護에

그 一位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신라 석탑과 그 浮彫像과의 관계란 佛塔의 神聖과 守護라는 의미로써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석탑의 표면 莊嚴에 따르는 美的 感覺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도 종교 본래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舍利供養에 따르는 조형으로서 菩薩供養像이라든지 奏樂天·飛天 등의 형식 역시 종교적 神聖으로써 이해할 수 있겠다.

신라 석탑에 있어서 이와같은 浮彫像이 가장 일찍 등장하는 예는 역시 芬皇寺 模塔石塔이다. 이 탑은 사방에 완전한 龕室을 내고 石門까지 달았으며 그 좌우에 소위 문지기로서의 仁王을 등장시킨 것으로서 유명하다. 즉 塔門을 지키는 守護神將으로서의 仁王을 거의 圓刻像에 가까운 정도로 조각하여 도합 八구를 등장시킨다. 이 탑의 건립은 절이 완공되는 善德女王 三年(六三四)과 동일한 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신라 最古의 석탑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이것이 초기 석탑에서부터 仁王의 조각상을 가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라 석탑 부조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같은 仁王像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그같은 기능은 석탑의 기본 구조가 四面이란 점에서 四方의 개념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고 하겠다. 그것은 소위 二王<sup>③</sup>으로서의 仁王이 갖는 기본적 개념은 석탑의 門戶에 제한되고 守門將의 역할에 있기 때문이다.

평소 필자는 신라 석탑의 부조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 二王으로서의 仁王이 어떻게 하여 四面 二구씩, 도합 八구의 仁王이 등장되는가에 대한 주목을 가진 바 있다. 물론 석탑의 各面을 독립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佛塔 역시 佛像을 봉안하는 堂과 동일한 성격으로서의 堂塔 伽藍일진데 그 門戶의 개념은 하나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管見을 지닌 바 있다<sup>④</sup>. 그것은 석탑의 내부 깊숙이 봉안되는 佛舍利에 대한 神聖과 法堂 내부에 봉안되는 佛像에 대한 동일한 神聖으로써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신라 石窟寺의 대표적인 吐舍山 石窟庵의 경우 四天王 앞쪽에 등장된 바와

같이 이는 한쌍의 仁王으로써 죽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초기 신라 석탑의 부조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은 七세기 전만 芬皇寺 석탑에서 찾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같은 配置方案은 곧 수정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은 방안은 三國期の 芬皇寺 석탑에 이어 八세기 전반으로 알려진 獐項里 南北五層石塔<sup>⑤</sup>을 그 基點으로 하여 차츰 변화되어 갔다고 하겠다. 즉 장항리 석탑역시 각면 二구의 仁王을 등장시켜 도합 八구의 仁王을 兩塔共히 나타내고 있으나 門扉는 模刻으로 변화된다. 또한 이 이후의 석탑에서는 塔身四면에 浮彫像을 등장시킨다 할지라도 四天王 또는 八部衆의 조각이 더욱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⑥</sup>. 물론 이후에도 仁王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타나다 할지라도 塔의 正面이 되고 있는 남쪽 塔身左右面에만 등장하여 仁王 본래의 기능을 확실하게 지키는 것으로 짐작된다<sup>⑦</sup>. 그러므로 초기 석탑의 四면에 각기 독립적으로 등장하였던 仁王像의 존재는 八세기 이후 그 기능이 점차 一面으로 제한되거나 아니면 다른 浮彫像과 함께 복합적 기능으로 轉換되고 있다<sup>⑧</sup>.

따라서 八세기 이후 신라 석탑의 부조상 조각에 따른 구조적 측면에서 가장 각광을 받은 尊像은 역시 이들 仁王과 함께 四天王 또는 八部衆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현존하는 석탑의 부조상에서 뿐 아니라 方形을 기본으로 하, 신라 석탑에 있어서 이들이 수적으로도 매우 적합하였던 사실에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神聖에 대한 수호적 개념에 있어서는 仁王과 동일한 기능을 지닌 尊像이란 점에서 도 쉽게 납득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四天王的 존재는 欲界六天 가운데 四王天에 소속되는 護世天이며 須彌山 四面的 중턱을 住處로 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外護의 기능을 갖는 仁王·四天王 외에 塔身을 장엄하는 독특한 부조상의 한 형식으로 四方佛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보다 후기에 등장되는 毘盧遮那 신앙과도 연관되는 것으로서 석탑의 보이지 않는 곳에 法身佛로서의 佛舍利를 想定하고 각면에 특징적 자방불을 조각

해 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는 塔婆信仰을 더욱 강조하려는 한 신앙적 內實이 급기야는 석탑 四方に 불상을 등장시키는 결과로 가져왔다고 하겠다. 이는 바로 부처의 本地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신라 석탑 부조상 발생의 또 다른 성격을 읽을 수 있겠다. 즉 佛塔 신앙에서 불상 중심으로 차츰 변화된 신앙형태에 대하여 塔婆의 신앙을 강조하려는 신라 불교예술 자체의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바로 四方佛의 신앙과 함께 밀접한 연관을 지니면서 신라 탑과 특유의 조형예술로 발전해 갔다고 하겠다.

이상이 佛塔의 탑신에 나타난 上層 기능으로서의 如來垂迹을 말하는 것이라면 다음은 그 아래 上下基壇에 등장되는 또 다른 하부조각으로서의 부조상 즉 八部神衆과 十二支神像을 들어야 한다. 이들은 역시 신라 석탑이 갖는 일련의 기능적 작용에 附會하는 것이며 앞서 말한 神聖에 대한 守護의 개념 또는 석탑의 上下 개념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리라 본다.

## II、浮彫像의名稱과造形的意味

### (1) 仁王

仁王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佛法을 수호하는 神將으로서 寺門의 양쪽을 지키는 두力士이다. 그러므로 이를 가리켜 金剛力士라고도 한다. 여기서 金剛이란 말은 흔히 佛經 속에서 견고한 것의 상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따라서 仁王은 金剛과 같은 智慧로써 惱煩을 꺾어 없애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金剛力士라 한다는 것이다. 注梵網經·大寶積經 등에 의하면 옛날에 一〇〇二명의 왕자가 있어 이중 一〇〇〇명은 發心하여 成佛(賢劫千佛)하고 다른 二명은 佛法을 守護할 것을 맹서하였는데 오늘날 寺門의 金剛力士의 二像이 이것이라 한다. 이들 두 왕자는 法意와 法念<sup>⑨</sup>이라고 하며 대체로 이들의 형상은 裸身に 과장된 신

체의 근육 표현, 머리카락은 肉髻 모양 묶였으며, 부라린 눈, 그리고 開口像과 閉口像 등의 특징을 지닌다(望月 佛敎大辭典 P. 四〇一九 참조) 대체로 이들은 그 기능에 따라 密迹金剛과 那羅延金剛으로 불려지는 듯하다. 즉 밀적금강이란 如來의 온갖 비밀된 事跡을 알고 五〇〇의 夜叉를 시켜 賢劫千佛의 法을 수호한다고 하며, 나라연금강은 일종의 力士로서 그 힘의 세기가 코끼리의 백만 배나 된다고 하니 이들은 모두 佛法守護의 상징적 二王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二王의 개념하에 완전히 분리되면서 秘藏記私本抄第三과 같은 기록에서는 金剛과 力士로써 二尊을 분리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즉 開口의 像을 金剛, 閉口의 像을 力士라고 한다. 허나 대체로 이들은 동일 개념상에서 두 기능을 造形的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들이 寺門 양쪽에 놓일 때 왼쪽은 密迹金剛, 마른쪽을 那羅延金剛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 (2) 四天王과 八部衆

四天王(Catvā srah mahā-rajjikān)⑩은 欲界六天(四天王天·忉利天·夜摩天·兜率天·化樂天·他化自在天) 가운데 그 첫 하늘인 四王天의 天王들이다. 즉 須彌山의 中腹 四面에 住하면서 佛法을 護持하는 四天王을 말한다. 이는 忉利天主 즉 帝釋의 外臣으로서 武將의 모양을 취한다. 그러므로 이를 護世四王이라고도 말한다. 대체로 이들 四天王은 大乘經典에서 열거되는데 이들은 자기 九一명의 아들이 있고 또 鬼衆을 거느리고, 동, 서, 남, 북 사방을 수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이들에게 직접 法藏을 護持하도록 명령⑪하기도 하고 또는 四天王 자신이 직접 法藏을 聽受하여 칭찬 공양하고 아울러 이 경전을 受持하는 四部衆을 擁護하겠다고 서원하기도 한다⑫. 또 四天王은 그 副將으로서 八部衆을 거느리기도 한다. 즉 法華經 戒環解 序品第一, 그리고 仁王護國般若經疏第二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명칭이 있어 비교된

다⑬. 그러나 大智度論第五十四에서는 東方持國天이 乾闥婆와 毘舍闍를 맡는다고 하였으므로 毘舍闍는 持國天에 소속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四天王에 소속되는 八部衆에 국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혼동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즉 일반경전에서 말하는 八部衆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來聚衆) 八部衆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法華經 譬喻品에서는 「……天龍夜叉乾闥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等大衆은 舍利弗이 佛前에서 阿耨多羅三藐三菩提의 授記를 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踊躍하기 한량없어서……」라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대부분의 경전이 그 끝에서 「諸大聲聞 天龍八部人非人衆이 각각 一心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受持하고 모두 다 환희하여 信受奉行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모두 부처님의 설법에 대한 聽衆 八部衆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들 八部衆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如來八部衆에 대하여 그 형상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① 天..대체로 花冠을 지닌 天人像으로 표현된다.

② 龍..일곱과 몸은 人形이나 뱀의 꼬리, 그리고 머리 위에 龍形을 지닌다.

③ 夜叉..사자·코끼리·호랑이·사슴·말·소·나귀·낙타·양 등의 모습으로 표현.

④ 乾闥婆..음악의 신으로 獅子冠에 三叉戟으로 표현.

⑤ 阿修羅..일곱은 三面으로 표현되고 팔은 여덟이고 손에는 칼 등 여러가지 持物을 갖는다.

⑥ 迦樓羅..人形에 새의 머리로 나타난다.

⑦ 緊那羅..人非人으로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일정하지 않으며 사람에게 새의 몸, 혹은 말 머리에 사람 몸이다.

⑧ 摩睺羅伽..冠 위에 뱀을 나타낸다.(以上은 現存하는 造形과 慧琳의 『一切經音義』 秦弘變 『韓國佛像의 研究』 등을 참조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四天王 그리고 그 副將으로서의 八部衆은 帝釋天의 소

위 外臣<sup>④</sup>으로서의 上下 기능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이 塔婆의 造形으로 나타날 때도 그 上下의 위치를 찾아하게 됨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와 함께 四天王에 소속되는 八部衆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乾闥婆(Gandharva)는 尋香·食香 또는 香神·樂神 등으로 일컬어진다. 또 帝釋天의 雅樂을 맡아 있는 神이라 한다.

② 毘舍闍(Viśāca)는 食血肉鬼(一切經音義第十八)、噉人精鬼(慧苑音義卷下) 등으로 알려져 있다.

③ 鳩槃荼(Kumbhanda)는 甕形鬼·瓶腹·陰囊 등으로 번역되며 이 역시 사람의 정기를 썩는 귀신이라 한다. 형상은 白馬의 머리에 人身을 취하고 바루나 또는 북을 두드리기도 한다.

④ 薜荔多(Preta)는 본래 죽은 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중국에서는 죽은 이의 靈을 귀신이라 한 까닭으로 이를 鬼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즉 餓鬼를 가리킨다.

⑤ 龍(Naga)은 구름과 비를 부리는 짐승으로 그 형상은 머리 위에 용의 모습이 등장된다.

⑥ 富單那(Pūtana)는 臭鬼·臭餓鬼로 번역되며 또는 熱病鬼·災恠鬼라고도 이름한다. 형상은 돼지와 같다고 하며 또는 영부의 모습이란다.

⑦ 夜叉(Yakṣa)는 捷疾·勇健 등으로 번역되며 天夜叉·地夜叉·虛空夜叉 등의 三종이 있다. 또 「獅子象鹿虎馬牛驢駝羊 등의 모양이다」(大吉祥神呪經第三)라고 하였다.

⑧ 羅刹(Rākṣasa)은 可畏·速疾鬼라 번역되며 大智度論 第十六에는 「惡羅刹의 獄卒은 소와 말 등의 여러 가지 형상을 지어 죄인을 물어 뜯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온 이들 소위 如來八部衆과 四天王八部衆 가운데 서로 일치하는 것은 乾闥婆·龍·夜叉 등 셋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에 대한 造形的 해석이 어떻게 시도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조각상은 四天王 팔부衆의 특징이라 보기보다는 대부분 如來八部衆이 위주되고 있다.

### (3) 十二支

佛經에 등장하는 十二支像은 대체로 藥師經 또는 大方等集經 또는 妙見菩薩神呪經 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이들은 서로 對比하여 살필 수 있는 것으로서 앞의 경우는 藥師經을 持誦하는 자를 응호하는 十二夜叉神將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大集經에서는 이들 十二獸를 열거하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약사여래의 十二大願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서 이들이 造形化되었고 동시에 方位와 時間을 나타내는 神으로써의 기능을 적절히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형태는 대체로 首獸人身으로써 때로는 武服으로 등장된다. 이제 이들의 명칭과 형태 그리고 持物 등을 儀軌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⑤</sup>.

| 名 稱          | 干 支 | 形 態       | 持 物  |
|--------------|-----|-----------|------|
| 宮毘羅(Kumbra)  | 寅   | 虎頭人身      | 棒    |
| 伐折羅(Vajra)   | 卯   | 虎頭人身      | 棒·刀  |
| 迷企羅(mihira)  | 辰   | 龍頭人身      | 鐵鎚·棒 |
| 安侖羅(Andra)   | 巳   | 陀頭人身      | 戟    |
| 安底羅(majja)   | 午   | 馬頭人身      | 戟    |
| 珊羅底(Sandra)  | 未   | 羊頭人身      | 槌    |
| 因達羅(indra)   | 申   | 猴頭人身      | 刀    |
| 跋伊羅(paija)   | 酉   | 雞頭人身(金翅鳥) | 刀    |
| 摩臘羅(makura)  | 戌   | 犬頭人身      | 槌    |
| 眞達羅(sindura) | 亥   | 猪頭人身      | 鐵鈎   |
| 招杜羅(catura)  | 子   | 鼠頭人身      | 鈎    |
| 毘羯羅(vikāra)  | 丑   | 牛頭人身      | 槌    |

또 이곳에서는 各十二支神이 彌勒·大勢至·彌陀·觀音 등의 大乘보살들을 그 本地로 하고 있어 이들이 四方佛의 형성과도 연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이곳에서는 十二支의 명칭 및 형식만 언급하고 方位佛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다시 고찰하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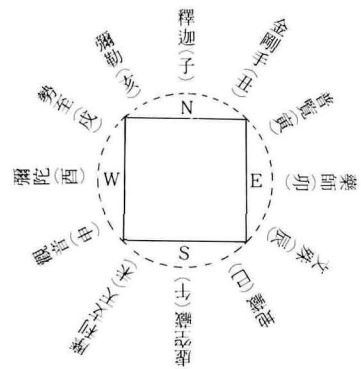
(4) 四方佛·其他

四方佛이란 말할 것도 없이 동·서·남·북 方位의 개념에 따라 설정된 자 특징적 불보살을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경전에 따라 尊名을 달리 말하는 곳이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은 못된다. 다만 中央의 法身佛 毘盧遮那를 중심으로 사방에 각기 상징적 부처를 설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은 四方의 佛土에 住하는 四佛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배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몇몇 경전에 열거된 四方佛의 명칭을 들어 이들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 經         | 名           | 東   | 南   | 西   | 北    |
|-----------|-------------|-----|-----|-----|------|
| 金光明經第一    | 觀佛三昧經第九     | 阿閼  | 寶相  | 無量壽 | 微妙聲  |
| 金光明最勝王經第一 |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 " " | " " | " " | " "  |
|           |             | 寶生  | 阿彌陀 | 天鼓音 | 不空成就 |

이들은 대체로 북방을 제외하고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 이들 四方如來가 十二支獸神의 方位에 따르는 本地로 등장되는 사례가 있어 흥미롭다. 즉 이는 阿闍梨全集의 說에 따른 것으로서 四方如來의 고찰에 참고가 될 것 같아 이곳에 圖式으로 풀어 보겠다.

이와 같은 圖像이 더욱 구체화되기는 보다 후대의 사실로 생각되지만 이들이 五行說과도 더욱 연관을 맺으면서 五色과 五方을 표시하여 木版



한다. 따라서 이것은 개념이 地上에서 더욱 확대되어졌을 때 臺山五萬眞身(7)과 같은 五方 개념으로서의 如來垂迹을 집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들 外에 塔과의 表면에 등장되는 보살공양상·奏樂像 또는 드문 예이긴 하지만 童子像 등은 부처님에 대한 供養의 형식으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塔과 내부에 봉안된 佛舍利 또는 中央 法身佛에 대한 신앙적 개념이 외부로 表出된 것이라 하겠다. 이들이 塔과의 표면에 등장되는 것은 보다 후기의 사실이지만 이러한 조형이 등장됨으로 하여 종내까지 매우 딱딱하던 外護的 造形 一色의 塔과 에 보다 장엄한 종교적 분위기를 더해가는 것으로 봐도 좋겠다.

동시에 塔과의 표면에 등장되는 門扉·眼象·莊嚴孔 등의 장식은 이와 같은 부드러운 조형양식과 더욱 조화를 찾을 수 있었겠지만 이들 중 眼象은 더욱 말기적 현상으로서 충분한 조형을 남기지 못하고 말았다. 다만 이들 보살상·주악상·문비·안상 등의 형식은 佛塔의 장엄을 강조하는 수법임에는 확실하나 시대적 분류, 또는 양식적 해석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印刷로 까지 등장되는 사실을 볼 수 있다(8). 아홉든 이는 佛敎의 方位佛 사상과 五行說과의 習合關係를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四方佛의 고찰에 있어서 더욱 복합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리라 본다. 즉 중앙의 法身佛을 중심으로 볼 때 各方에 나타나는 상징적 부처는 바로 法身佛의 垂迹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方位概念과도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는 方便的 造形임을 알게

### Ⅲ、機能에 따르는 類型分類

신라 석탑을 먼저 기능적인 면에서 크게 분류한다면 內的機能과 外的機能으로 大別할 수 있겠다. 內的機能이란 말할 것도 없이 塔婆의 佛舍利 봉안에 따르는 여러가지 莊嚴法式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라 造塔經이라 할 수 있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塔婆의 內的機能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外的機能이란 塔婆의 表面莊嚴에 따르는 造形的 現象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앞의 內的機能이 佛敎工藝의 성격적 지닌 것임에 비하여 이 外的機能이란 불교 조각의 분야에 배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그 성격상 內的機能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다만 主題에 따라 신라 석탑의 외적기능으로서 등장되는 浮彫像의 類型을 밝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대체로 이들은 탑과의 佛舍利 봉안에 따르는 外護的 類型과 信仰的 類型, 그리고 裝飾的 類型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의 기능을 들 이상 지닌 소위 複合的 類型으로 나눌 수 있겠다. 먼저 외호적 類型이란 단손히 外護神將의 역할만을 지닌 석탑을 말하며, 信仰的 類型이란 탑신에 등장되는 四方佛의 형식이다. 그리고 裝飾的 類型이란 이들과는 無關하게 순전히 탑파의 장엄을 위주로 하는 장식의 기능을 지적할 수 있으며, 複合的 類型이란 같은 여러 部類의 기능이 하나 이상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하겠다.

#### 一、外護的 類型

이는 탑과 부조상 가운데 그 성격상 중심이 되며, 仁王·四天王·八部衆·十二支 등의 外護神將을 하나 또는 그 이상 등장시키는 탑파를 일단 이 部類에 넣을 수 있겠다.

이에 속하는 중요 석탑과 부조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塔名         | 彫刻名      | 所在地           | 備考 |
|------------|----------|---------------|----|
| 南山洞西三層石塔   | 八部衆      | 경북 慶州市 南山洞    |    |
| 禪林院址三層石塔   | 八部衆      | 강원도 襄陽郡 西面黃耳里 |    |
| 雲門寺東西三層石塔  | 八部衆      | 경북 淸道郡 雲門面新院洞 |    |
| 遠願寺址東西三層石塔 | 四天王·十二支  | 경북 月城郡 外東面毛火里 |    |
| 臨河洞三層石塔    | 菩薩立像·十二支 | 경북 安東郡 臨河洞    |    |
| 東本洞三層石塔    | 四天王      | 경북 醴川郡 醴川邑東本洞 |    |

위의 도표를 의지하면 단독적 조형이란 八部衆이 가장 많고 그외 四天王도 등장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즉 같은 外護的 기능을 감당하는 部類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四天王·十二支, 그리고 菩薩像·十二支를 종합적으로 지닌 예가 있는가 하면 이들을 독자적으로 지닌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가운데 어느 것이나 하나만을 등장시켜도 족한 것이지만 그 기능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는 뜻에서 둘 이상 복합적으로 나타내었다고 하겠다. 그 가장 전형적인 예가 月城 遠願寺東西三層石塔을 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은 現存하는 석탑을 의지한 것이고 그의 廢塔材로서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난다. 특히 이들 가운데 뺄 수 없는 것은 仁王에 관한 것이지만 仁王은 단독으로 등장되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고 언제나 중간에 門扉를 놓고 있다<sup>19)</sup>. 그러므로 이는 외호적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장식적 의미도 있으므로 그 형식 분류에 있어서는 複合的 類型에 배속시키기로 하겠다.

#### 二、信仰的 類型

사실 탑파에 나타나는 부조상들이 어느 것하나 불교의 신앙적 기능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신앙적 유형으로서 고찰하려는 것은 그 기능이 독특한 까닭이다. 즉 불교 전래로부터 수용받

전되어가는 과정에서 불교의 신앙적 조형에도 변천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초기 佛塔이 매우 중요한 신앙 대상의 역할을 하던 시점에서 차츰 불상으로 그 신앙의 주체가 이동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기적 현상으로서 신라 下代에 오면 종래의 外護의 기능을 나타내는 諸像과 더불어 탑과의 측면에 불보살상을 등장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대체로 이들은 金堂 즉 法堂 위주로 전개되는 신앙 형태에서 다시 塔婆에로 그 신앙의 주체를 강조해 보려는 한 움직임이라고도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의 경우도 흔히상은 것이지만 四方如來는 다른 기능을 지닌 부조상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례이다. 다만 이와같은 신앙적 유형에 속하는 탑으로서 단독으로 四方如來 또는 보살상만을 지닌 대표적 석탑은 경북 金陵郡 甌山面 修道里 소재 靑巖寺 修道庵 東西三層石塔을 들 수 있겠다. 이들중 東塔은 탑신의 사방에 일종의 龕室型 공간을 마련하고 그 속에 浮肉彫의 四方佛을 등장시켰으며 西塔은 四구의 마애보살상이다.

그외 더욱 연대를 내려다 보아야겠지만 탑신에 나타나는 불상으로는 역시 華嚴寺 九層庵 石塔에서 찾아야 하겠다. 이 탑은 초층 탑신 南面に만 四方佛의 기능은 아니다. 그것은 연대가 더욱 내려오면서 略化를 거듭하는 한 형식적 변화를 이 탑에서 볼 수 있겠다. 물론 이들 외에도 이 部類에 넣을 수 있는 탑이 있겠지만 四方佛의 단독상을 지닌 완전한 탑으로는 필자의 조사가 더욱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강원도 原州 鶴城洞, 또는 경주 일원에도 상당수의 四方佛 塔身石이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폐탑이므로 아직 기능적 부류에 넣을 수는 없다. 그외 사방불을 지닌 탑은 다른 기능을 지닌 부조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후 복합적 類型에서 그 現存 유품을 주목하기로 하겠다.

### 三、裝飾的 類型

다음으로 장식적 類型이란 탑과의 표면에 나타나는 門扉·眼象 등을 지닌 탑이다. 이들중 門扉를 지닌 탑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것도 眼象만을 나타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독 조각을 지닌 탑은 흔치 않다. 이들을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塔 名       | 彫 刻 名    | 所 在 地        | 備 考    |
|-----------|----------|--------------|--------|
| 高仙寺址三層石塔  | 門扉·莊嚴孔   | 現、慶州博物館      | 初層屋身4面 |
| 聖住寺址三層石塔  | 門扉·莊嚴孔   | 충남保寧郡甌山面聖住里  | 3기중 2기 |
| 鑿藏寺址三層石塔  | 眼象       | 경북慶州市暗谷洞     | 上層基壇   |
| 梵魚寺三層石塔   | 眼象       | 釜山市東萊區靑龍洞    | 上下基壇   |
| 到彼岸寺三層石塔  | 眼象·仰蓮·伏蓮 | 江原道鐵原郡東松面觀雨里 | 基壇部    |
| 九山里三層石塔   | 門扉       | 경북蔚珍郡近南面九山里  | 初層屋身南面 |
| 葛項寺址東三層石塔 | 莊嚴孔      | 現、서울景福宮      |        |

이상 열거한 석탑은 순전히 장식적 類型을 나타내는 몇몇 예이고 그 외에도 이같은 성격에 준하는 석탑으로서 義城 塔里五層石塔, 善山 杖寺址五層石塔, 善山 海平面 洛山洞三層石塔 등을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신라 석탑 중에서도 芬皇寺 模塼石塔의 형식을 취하는 별개의 손수 模塼石塔系 塔婆<sup>20</sup>에 속하는 것으로서 門扉의 模刻이 아닌 완전한 龕室을 지니고 있어 별도로 고찰되어야 하리라 본다. 다만 이같은 龕室形式을 略化한 것이 門扉의 형식이라 본다면 이들 역시 동일한 연관 속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塔婆에 眼象만을 등장시키는 경우는 역시 드문 예이긴 하지만 이 역시 종래까지의 외호적 기능으로 나타났던 塔婆의 浮肉彫에 새로운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特記할 것은 이들 장식적 類型에 속하는 석탑 가운데 高仙寺·葛項寺·聖住寺 등 石塔의 탑신에는 여러개의 못구멍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필시 金銅板 같은 것을 부착하여 佛塔을 장엄하였던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장식적 기능은 佛塔의 수호나 신앙적 기능 외에 별도로 만들어진 탑과의 한 變相으로 이해되어야겠다.

#### 四、複合的 類型

끝으로 복합적 유형이란 앞서 말한 몇가지 유형의 부조상이 동일한 석탑에 복합적으로 등장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들은 탑과 부조상의 외호적 기능이나 신앙적 또는 장식적 기능이 서로 어울려 나타나 는 경우이다. 즉 탑과 부조상의 내용들이 서로 적절한 조화 속에서 종합적 기능을 지니면서 출현되는 것이므로 자연 교리적 해석이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 중 중요한 석탑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塔名         | 彫刻名                       | 所在地             | 備考       |
|------------|---------------------------|-----------------|----------|
| 獐項里南北五層石塔  | 仁王·門扉                     | 경북 月城郡 陽北面      | 仁王 16 軀  |
| 傳永敬寺址三層石塔  | 仁王·門扉                     | 경북 慶州市 西岳洞      | 仁王 2 軀   |
| 昌林寺址三層石塔   | 八部衆·門扉                    | 경북 慶州市 塔里       | 現存仁王 4 軀 |
| 崇福寺址東西三層石塔 | 八部衆·門扉                    | 경북 月城郡 外東面 末方里  | 八部衆 16 軀 |
| 實相寺百丈庵三層石塔 | 仁王·菩薩·秦樂天人·童子·飛天·門扉·蓮華·欄干 | 全南 南原郡 山內面 大井里  |          |
| 華嚴寺西五層石塔   | 四天王·八部衆·十二支·眼象            | 전남 求禮郡 馬山面 黃田里  |          |
| 華嚴寺四獅子石塔   | 仁王·四天王·菩薩·秦樂天人            | 전남 求禮郡 馬山面 黃田里  |          |
| 陳田寺址三層石塔   | 四方佛·八部衆·天人                | 강원도 襄陽郡 降峴面 屯田里 |          |

|           |               |                |
|-----------|---------------|----------------|
| 山清泛鶴里三層石塔 | 菩薩·八部衆        | 現, 서울 景福宮      |
| 中興寺址三層石塔  | 四方佛·仁王·四天王·菩薩 | 전남 光陽郡 玉龍面 雲坪里 |
| 觀德洞三層石塔   | 菩薩·四天王·天部衆    | 경북 義城郡 丹村面     |
| 南山僧燒谷三層石塔 | 四天王·眼象        | 現, 慶州 博物館      |
| 新月洞三層石塔   | 八部衆·門扉        | 경북 永川郡 琴湖面 新月洞 |

이상 몇가지 類型의 부조상을 내용별로 분류해본 결과 仁王像을 지닌 탑은 五기, 四天王 七기, 八部衆 九기, 十二支 三기, 四方佛 및 보살 4기, 그의 眼象 등을 지닌 탑은 一六기이다. 이같은 내용 분류에 의하면 外護의 기능을 지닌 造形이 단연 수위가 됨을 알겠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八部衆과 四天王은 단독으로 등장되는 수가 있지만 仁王은 오로지 다른 기능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상 열거한 類型 외에도 중요한 부조상을 지닌 신라 석탑이 상당수 조성되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도괴되었거나 아니면 파괴된 채 原型을 상실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蔚州 潤月寺址 廢塔, 경주 박물관 회랑과 정원, 경주 경찰서 정원 등에도 상당수의 석탑 부조상을 지닌 조형이 있으나 석탑의 副材에 불과하므로 같은 이유로 제외하였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그 성격상 이후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sup>21)</sup>

### 三、浮彫像 樣式의 綜合的 考察

#### 1、配置形式 및 특징

대체로 부조상이 등장되는 위치는 상하기단과 초층옥신이다.



圖1 74. 5. 4.



圖2 獐項里五層石塔 東面仁王像



圖3 獐項里廢塔 東面仁王像



圖4 昌林寺址石塔 阿修羅像



圖5 羅乾闥婆像(南面)  
南山里西三層石塔 阿修



圖6 崇福寺址東塔(南面)  
아수라 건달바상



圖7 송복사西석탑 긴나라(?) 마후라상(西塔 東面)



圖8 석굴암 아수라상  
(向左側 入口에서 第1像)

먼저 하층기단에 十二支를 등장시킨 예는 華嚴寺西塔 또는 安東 臨河 三層石塔<sup>22)</sup>을 주목할 수 있으며 이와는 달리 상층기단에 배치시킨 예는 遠願寺가 독특하다 하겠다. 또 이들 기단을 一(二柱)의 탱주로 구획하여 天人像을 등장시키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sup>23)</sup>. 또는 상층기단에 탱주를 생략한 채 四天王像만을 각면에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고<sup>24)</sup> 仁王과 四天王, 그리고 보살공양상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수도 있다<sup>25)</sup>.

다음으로 탑신부의 屋身에는 四方佛 또는 보살상을 각면에 단독으로 등장하는 형식<sup>26)</sup>, 仁王·四天王·보살상을 복합적으로 나타낸 형식<sup>27)</sup>, 四天王만을 등장시킨 형식<sup>28)</sup>, 仁王만을 등장시킨 형식<sup>29)</sup>, 그리고 實相寺 栢丈庵 三層石塔과 같이 각층 각면에 보살·天人·仁王·飛天 기타 건축장엄 등이 가득찬 工藝的 石塔의 형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諸像 外에 초층 옥신에만 등장되는 門扉라든지 기단 또는 탑신부를 장식하였던 眼象과 莊嚴孔의 형식을 주목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 諸像의 배치형식을 각상에 따라 검토해 볼 필요를 느낀다.

먼저 仁王力士는 一面一雙인 경우 언제나 탑신의 정면에 위치하여 門扉左右를 지키는 형식임에 변함이 없다. 석굴암의 경우 向하여 좌측상은 입을 벌렸고 우측상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같은 배치형식은 대체로 석탑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무기를 들었다든가 또는 인왕상의 배치에도 차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형식에는 동일하다.

다음으로 四天王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는 造形이지만 이 시대에 나타나지는 부조상의 형태로써 곧 방위를 결정짓기는 곤란하다. 그것은 이들이 지닌 상징적 持物에 큰 특색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북방의 多聞天만이 塔을 지니는 공통적 형식을 취하므로 곧 다문천은 이들 塔身의 방향, 또는 사천왕의 명칭 해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仁王이나 四天王의 배치형식에 비하여 八部衆은 그 형식과 약에 어려움을 면치 못한다. 개중에는 석탑수리시에 기단면석을 잘못 배

치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온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풍화로 인하여 형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형태 및 명칭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나 崇福寺址 東西塔 八部衆은 東塔南面石만을 제외하고 모두 一枚石으로 이룩되었으므로 그 배치형식에 표준이 되리라 본다. 다만 양식상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배치형식은 거의 동일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

| 形式   | 方 向            |               | 名稱  | 形態 및 持物  |
|------|----------------|---------------|-----|--|
|      | 東面             | 西面            |     |  |
| 第Ⅰ形式 | 向左像(A)<br>緊那羅? | 向右像(D)<br>夜叉? | 摩睺羅 | 兩手合掌. 머리의 좌우에 소와 말, 그리고 상부에 새를 등장시켰다.<br>左手는 뱀을 잡고 右手는 앞가슴에 대었으며 머리에 뱀을 등장시켰다.       |
| 第Ⅱ形式 | 向左像(C)<br>天?   | 向右像(E)<br>阿修羅 | 夜叉? | 右手는 金剛杵, 左手는 허리에 대고 머리 寶冠형태.<br>兩手를 가슴에 대고 새의 부리(?)에 寶冠형태.                           |
| 第Ⅲ形式 | 向左像(F)<br>乾闥婆  | 向右像(G)<br>迦樓羅 | 乾闥婆 | 三頭八臂, 各 손에 日·月(寶盒形態)·刀·鉤·金剛杵·노끈 등을 가짐<br>獅子머리에 오른손으로 사자를 잡고 왼손은 배에 대다 <sup>30)</sup> |
| 第Ⅳ形式 | 向左像(H)<br>龍    | 向右像(I)<br>龍   | 龍   | 머리에 龍을 등장. 左手로 용의 꼬리 부분을 잡고 右手는 如意珠를 쥐다.<br>입에 연주를 물고 두손으로 받치고 있다 <sup>31)</sup>     |

※ 崇福寺址 東塔基準(1982·2 현재)

다라서 이들 崇福寺址 東塔 八部衆의 배치형식에 準하여 몇몇 중요한 석탑 팔부중의 現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塔名  | 崇福寺址西塔           | 昌林寺址三層石塔     | 南山里西塔        | 栗田寺址三層石塔     | 禪林院三層石塔      |
|-----|------------------|--------------|--------------|--------------|--------------|
| 東面  | 回左像 제 I 형식 (A)   |              | 제 IV 형식 (G)  | 제 IV 형식 (G)  | 제 II 형식 (D)  |
| 回右像 | 제 I 형식 (B)       |              | 제 IV 형식 (H)  | 제 IV 형식 (H)  | 제 II 형식 (C)  |
| 西面  | 回左像 제 III 형식 (E) | 제 II 형식 (C)  | 제 II 형식 (C)  | 제 II 형식 (D)  | 제 I 형식 (A)   |
| 回右像 | 제 III 형식 (F)     | 제 IV 형식 (H)  | 제 II 형식 (D)  | 제 II 형식 (C)  | 제 I 형식 (B)   |
| 南面  | 回左像 제 IV 형식 (G)  | 제 III 형식 (E) | 제 III 형식 (E) | 제 III 형식 (E) | 제 III 형식 (E) |
| 回右像 | 제 IV 형식 (H)      |              | 제 III 형식 (F) | 제 III 형식 (F) | 제 III 형식 (F) |
| 北面  | 回左像 제 II 형식 (C)  |              | 제 I 형식 (A)   | 제 I 형식 (A)   | 제 IV 형식 (G)  |
| 回右像 | 제 II 형식 (D)      | 제 III 형식 (F) | 제 I 형식 (B)   | 제 I 형식 (B)   | 제 IV 형식 (H)  |

※ 경주 박물관 소장 昌林寺 塔八部衆은 夜叉와 迦樓羅(제 II 형식(D), 제 IV 형식(G))가 더 있으나 어느 면에 속하는지 아직 모르겠다.

이상과 같은 #1·2 도표에 의하여 이들 부조상이 가장 현저하게 일치하는 것은 南面 제 III 형식인 (E) (F) 즉 阿修羅와 乾闥婆임을 알겠다. (송복사 서탑은 혼동되었음) 그리고 迦樓羅와 龍(제 IV 형식의 (G) (H)이 같은 面의 像임을 알겠고 ㉔ 동시에 緊那羅와 摩睺羅(제 I 형식의 (A)·(B)), 天과 夜叉(제 II 형식의 (C)·(D)), 등이 동일한 면석 위에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리고 위에 열거된 내용들의 아직 부정확한 명칭은 일단 차면에 나타난 부조상의 현상을 의지하여 그 특징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므로 상당히 주관적 견해가 첨부되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들의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十二支의 배치방안은 매우 단순한 편이다. 그 위치는 陵墓의 형식에서처럼 南北 子午線上을 중심으로 각면 三구씩 배치되는 것이 通式이다. 다만 부조상 가운데 제일 下位에 놓인다.

그리고 四方佛은 부조상 가운데 가장 상층에 놓이며 그 명칭은 앞서 살핀 바와 같거나와 그 위치 역시 이들이 부조상 가운데 가장 尊像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해된다. 이들중 靑巖寺 修道庵東西塔의 경우는 東塔이 如來像임에 비하여 西塔은 보살상으로 배치되는 특이한 양식이며 그 위치는 모두 초층탑신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탑과 부조상의 형식 분류는 그 위치 또는 同伴되는 諸像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먼저 이들을 從的인 上下關係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바로 불교의 교리적 해석에 근거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왜냐하면 탑 자체에 나타난 부조상은 불교의 世界觀을 설명하는 須彌山의 형식과도 밀접한 연관 속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탑에 등장된 부조상들이 이들 내용들을 모두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전체적 의미는 확실히 宇宙의 軸으로서의 須彌山, 그리고 축소된 수미산으로서의 佛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三界 가운데 먼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欲界六天 ㉔ 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은 바로 上下 개념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輪廻의 갈래가 되고 있는 六道를 설명할 때 地獄道·餓鬼道·畜生道는 가장 下位에 속하는 三惡道에 배속될 것이며 다시 그 위에 阿修羅道·人道·天道는 三善道로서 보다 上位에 있음이 당연하다. 즉 이들은 다분히 그 관념상으로도 종교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 다시 말하면 法身佛로서의 毘盧遮那가 佛塔의 중심부에 內在해 있고, 또 그 개념을 확대시킨다면 佛塔 자체가 하나의 축소된 수미산으로서도 파악될 수 있다는 개념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신라 서탑은 당연히 上下 개념을 유발하는 層塔으로서 그 조형적 의미를 찾았다고 하겠다. 즉 그下方에는 당연히 三惡道의 여러 造形이 놓일 수밖에 없고 동시에 차츰上方으로 갈수록 더욱 佛世界에 접근하는 조형이 등장되는 형식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형식은 신라 서탑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기록된다. 즉 제일 아래쪽에 畜生의 대표적 부류가 되는 十二支를 등장시킴으로써 윤회를 상징 ㉕하는 조형을 놓게 되었고 다시 그 위에 八部衆이나 四天王이 배



向左像

崇福寺址東塔(東面)

向右像



向左像

崇福寺址東塔(西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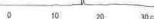
向右像



向左像

崇福寺址東塔(南面)

向右像



向左像

崇福寺址東塔(北面)

向右像





向左像

崇福寺址西塔(東面)

向右像



向左像

崇福寺址西塔(西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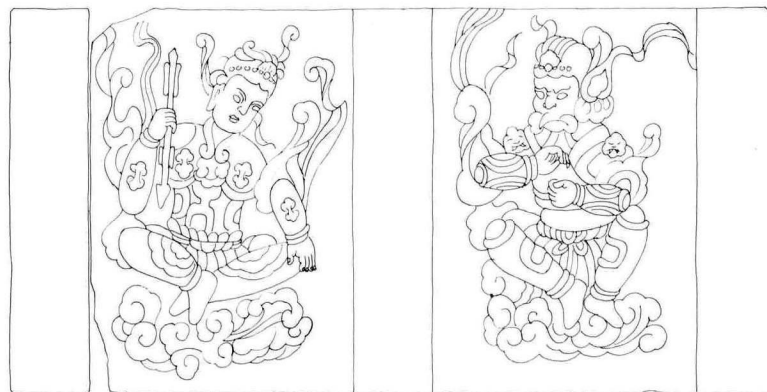
向右像



向左像

崇福寺址西塔(南面)

向右像



向左像

崇福寺址西塔(北面)

向右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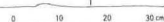




圖 9 화엄사 사사지석탑



圖 10 75. 9. 15. 화엄사四獅子石塔 기단天部像



圖 11 陳田寺址三層石塔四方佛 (北面) 北面の佛



圖 12 陳田寺址三層石塔 긴나라 상(?) 北面向左像



圖 13 陳田寺址三層石塔 龍像 (東南面右像)



圖 14 禪林院址三層石塔 아수라 건달바상 南面



圖 15 遠願寺址三層石塔



圖 16 75. 6. 6. 청암사 수도암 동 3 층석탑四方佛

치되는 형식으로써 조형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上方에 四方佛 등이 놓이는 형식은 그 교리적 해석에서도 당연하다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守門將의 역할을 하는 仁王力士는 평형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즉 門의 개념이란 수직적이기 보다는 평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仁王의 배치형식은 이같은 上下 개념에서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仁王은 塔身에 一面一雙인 경우와 四면四쌍인 경우로 大別되지만 전자의 경우는 언제나 그 위치가 塔婆의 正面(南面)이 되는 의미 밝힌 바와 같다. 따라서 仁王의 이같은 橫的 개념으로 인하여 보다 後代, 다시 말하면 보다 정비된 석탑의 조형 양식에서는 탑신의 정면 즉 전방에 門扉를 중심으로 좌우에 仁王二구, 또 탑신의 좌우 兩面に 각 二구의 四天王, 그리고 그 후방에 보살공양상을 배치<sup>55</sup>하는 형식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바로 탑신 중앙의 佛舍利 즉 佛身の 존재를 의식한 형식이라 하겠다. 이같은 佛身の 존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예가 신라 하대에 기록된 鐵原到彼岸寺 三층석탑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佛塔의 기단부가 八각이고 상하 기단의 甲石에 역시 八각의 伏蓮과 仰蓮을 삼입함으로써 그 형식이 불상의 蓮花臺座와 전혀 상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八각의 연화대좌 위에 三층의 탑을 놓았지만 그 근본적 意匠은 바로 불상의 존재에 相通하고 있으므로 장식적 조형으로서의 변화형식을 알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앞서 말한 外護·信仰·裝飾의 기능은 그 배치형식에 따라 보다 복합적으로 살펴왔다. 그러므로 그 형식 속에서 특징적 내용을 지적한다면 상호 구조적 형식에 따르는 종교적 배치 방안을 주목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배치 방안을 吐含山 石窟庵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매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석굴암의 경우는 평형적 배치 방안이지만 이를 이같은 신라 석탑에 配對한다면 그 형식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十二支——八部衆——仁王——四天王——佛

이는 석굴 後室周壁의 상하에 있는 보살·제자·天衆을 제외한 형식

이지만 신라 석탑의 수직적 배치 형식과 상통한다. 즉 十二支와 같은 方位獸나 또는 輪廻獸의 형식이 토함산 석굴에서는 생략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그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想定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것이 縱的으로 적용될 때는 바로 신라 석탑 조각상의 배치형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 석탑의 배치 형식이란 철저한 상하 개념 속에서 그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자연 方形을 기본으로 하는 層塔의 구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서 신라인 특유의 造形意志를 구축해 나갔다고 하겠다.

## II、樣式的展開와 變遷

조형작품의 양식변천이란 그것의 기원으로부터 發展 展開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이르러 停滯·退化의 순환을 거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초기 발전단계와 후기 정제 퇴화단계는 그 양식적 기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造形樣式에 있어서는 상통함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발전단계 가운데 성숙기의 완숙한 작품을 논하기란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그 기원과 퇴화의 과정에서 노출되어지는 이들의 유사성에 더욱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물론 초기의 보다 稚拙하고 추상적 조형작품에서 후기의 간략 화와 정제화되는 현상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이들의 유사성에서 오는 혼동을 막기 위하여 그 발생순서에서부터 고찰하는 것이 무난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앞서 말한 몇가지 類型에 따르는 대표적 석탑을 들어 먼저 그들 諸像의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동시에 이들의 발생순서를 찾아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양식적 특징 또는 변천과정을 추구하기에 편리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통일신라시대 석탑 부조상의 발생순서를 어디에서

부터 찾아야 하는 것일까. 여기 대하여는 古新羅時代 석탑 조각상과 통일기 석탑 부조상의 連繼에서 이들을 抽出해야 될 것 같다. 말할 것도 없이 고신라기의 대표적 조형을 지닌 석탑은 역시 분황사의 模塼石塔이다. 이곳에 등장되는 四面四雙 도합 八구의 仁王 배치양식이 바로 통일기 석탑의 부조상에 전승되었음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같은 배치방안은 바로 八세기 전반의 진립으로 추정되는 月城獐項里南北兩塔<sup>36</sup>에서 이미 지목된 바 있다. 이 탑은 탑신 각면의 중앙에 龕室을 門扉形式으로 模刻했을 뿐 초층옥신을 이용한 諸像의 배치형식은 분황사와 동일하다. 다만 분황사의 仁王이 거의 圓刻像으로 조각되었음에 반하여 장항리 석탑 인왕은 단순히 浮彫像으로 전개됨이 다르다. 그러나 분황사 탑에서의 과장적이고 추상적양식이 장항탑에도 바로 그대로 전해지고 있으나 전자에서의 분노상의 모습이 이곳에서는 더욱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동시에 분황탑에서는 龕室左右 독립된 석주를 이용하던 仁王조각이 이곳에서는 一石의 屋身 各面に 模刻된 兩隅柱앞으로 나와 있으므로 조각적으로 立體感을 주고 있음이 특이하다.

그렇다면 통일신라시대 石塔 부조상의 기원과 전개과정은 분황사 탑의 형식을 따르는 장항리 석탑 仁王에서 찾았다 하더라도 그의 기능을 지닌 부조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여기 대하여는 통일초기 진립의 諸塔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겠다. 따라서 이같은 초기 석탑으로는 感恩寺石塔 또는 高仙寺石塔 그리고 月城羅原里五層石塔 또는 傳皇福寺址石塔 등을 주목할 수 있겠다. 이들 가운데 앞의 두 탑은 통일초기 七세기 후반임에 비하여 뒤의 두 탑은 그 말엽과 그리고 七〇〇년을 전후한 탑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거의 다 별다른 장식 없이 素面의 석탑임에 비하여 유독 高仙寺石塔만이 초층 옥신 각면에 門扉의 模刻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같은 고신사 석탑은 그 양식계보에서 볼 때 분명 앞서 살핀 장항리 석탑에 앞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통일초기 석탑 표면 장식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분황사 형식에 준하는 인왕에서 단 찾을 것이 아니라 이들이 略化된 門扉形式에서도 추구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들의 발생 및 전개는 석탑의 기단부에 등장되던 八部衆에서 보다는 옥신의 仁王, 또는 四天王의 외호적 기능 속에서 찾아야 하리라 본다. 이와 함께 신라 석탑 인왕상의 전개과정은 분황사 석탑 형식에 변화된 門扉形式 또는 一면 一쌍의 단독 기능을 지닌 형식에서 다른 복합적 기능을 지닌 諸像과 함께 혼용되어 갔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같은 배치방식에 준하여 이들 외호적 기능을 지닌 석탑에서부터 그 類型別로 고찰해야겠다.

먼저 순수 외호적 기능을 지닌 석탑 인왕상으로는 一면 一쌍의 형식을 취하는 獐項里南塔, 그리고 西岳三層石塔을 지목해야겠다. 이들 양탑의 양식적 변천은 큰 차이를 지닌다. 물론 이들 두 양식 사이에는 보다 정비되고 발전된 단계의 새로운 양식, 일테면 화엄사 四獅子石塔 仁王과 같은 매우 균형미 있는 조각상을 주목할 수도 있겠지만 장항리 석탑 인왕이 분황사 탑에서 더욱 變化내지 한 단계 발전한 석탑이라면 西岳塔은 보다 착실한 분황사 계통 模塼塔의 양식임은 그 형식처리에서 알 수 있다. 즉 西岳塔은 탑파의 형식뿐 아니라 仁王의 양식 역시 분황사에 준하는 浮肉彫의 과장적 표현임을 주목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같은 외호적 기능 속에서도 四天王의 형식이란 독립적인 것은 매우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다른 기능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다만 말기적 현상으로 醴泉 東本洞石塔 四天王을 지목할 수 있다. 이의 조각은 이미 상층기단으로 내려왔으나 양식적 變化와 경직된 수법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천왕에 대하여는 복합적 기능에서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외호적 기능을 지닌 八部衆은 상당수 단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양식변천은 먼저 國都 경주를 중심으로 차츰 지방에까지 전파되었다고 생각된다.

먼저 이들 가운데 중요한 석탑을 열거하면 昌林寺石塔・南山里西塔・崇福寺址東西塔・雲門寺東西塔・禪林院址石塔・永川新月洞石塔 등을 주목할 수 있겠다. 대체로 이들은 신라 盛代 八세기 중엽 이후 탑파의 기

능이 더욱 강조되면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갔다고 생각된다. 창림사 석탑이나 남산리 석탑에 비하여 다소 便化를 견고 있는 崇福寺址東西塔<sup>37)</sup>이나 또는 선림원 석탑들이 전혀 동일한 형식과 조형 수법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물론 선림원 석탑은 보다 앞선 수법인 이웃의 陳田寺 석탑 팔부중 양식을 바로 그대로 옮겨놓고 있지만 보다 심약화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선림원 팔부중 양식과 같은 九세기 이후의 작품으로는 역시 운문사와 新月洞 석탑 팔부중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이들 석탑 팔부중 양식은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보다 넓게 확산되면서도 동일한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十二支의 형식은 遠願寺址 東西塔의 경우 상층기단에 각면 三구석을 배치함으로써 그 양식 파악이 용이한 편이다. 首獸人身의 형태가 陵墓의 十二支를 연상케하나 이미 前代의 이상적 표현은 아니고 衣紋은 더욱 圖像의 형식을 면치 못한다. 이들 조형은 八세기 후반에 놓아도 좋을 것이며 화엄사 또는 안동석탑의 十二支는 遠願寺 형식을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이에 뒤지는 형식으로 파악된다. 특히 안동석탑의 경우는 九세기 이후의 말기적 양식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리라 본다.

그리고 信仰的 類型으로 분류되었던 四方佛은 별로 흔치 않은 내용이 다. 외호적 기능도 동시에 지닌 진전사 석탑은 八세기 후반의 사실적 표현에서 九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靑巖寺 修道庵 양식의 선구적 형태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수도암 서탑의 보살공양상 역시 前代의 유연한 수법을 착실히 표현하고 있다든지 또는 복잡한 衣紋을 애써 나타내고 있는 것 역시 이미 斜陽에 이른 신라 석탑 부조상의 거의 말기적 걸작이라 하겠다. 역시 동탑의 四方佛에 준하는 연대에 놓아도 좋겠다. 다음으로 장식적 類型의 석탑은 暗谷 鑿藏寺址石塔 또는 梵魚寺三層石塔을 주목할 수 있다. 무장사의 경우는 상층기단에 隅柱와 撐柱를 생략하고 등근 眼象을 배치하였으나 범어사 석탑은 상층기단에 모두 안상으로 가득 채웠다. 무장사 석탑에 비하여 범어사의 경우는 더욱 도상적이고 略化一路를 견고하는 느낌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범어사 석탑은

무장사 석탑에 뒤지는 형식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그의 탑신을 장식하던 莊嚴孔은 高仙寺址石塔·葛項寺石塔 또는 聖住寺와 같은 형식에서 주목할 수 있으나 이는 특수한 수법이며 아직 그 형태를 논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다만 옥개에 나타나는 風鐸의 경우는 이 시기에 通時代的으로 등장되는 수법으로 짐작된다.

끝으로 복합적 기능을 나타내는 석탑은 이들 부조상을 지닌 신라 석탑을 대표하는 격이 될 것이다. 그들의 형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먼저 이들이 이같은 다양한 부조상을 지니게 되는 것은 시대가 내려가면서 그만큼 탑과의 기능이 강조되었고 동시에 탑과의 장엄을 요구받았다는 해석이 될 것이다.

대체로 이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초층탑신을 장엄하는 외호적 수법에서 출발하여 시대가 흐르면서 그 기능이 더욱 다양해졌다고 하겠다. 八세기 전반으로 봐도 좋을 장항리 남탑에서부터 八세기 중엽 신라 盛代의 조각수법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는 화엄사 四獅子石塔, 그리고 八세기 후반 아직도 이상적 사실주의를 지향하는 신라시대의 조각수법을 그대로 이어주는 경주의 昌林·崇福 兩寺의 浮彫像 또는 陳田寺石塔 등은 모두 철저한 복합기능 속에서 잘 다듬어진 名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법에서 中興寺址, 또는 山淸 泛鶴里三層石塔(現景福宮)<sup>38)</sup> 觀德洞石塔 등은 이들 복합적 기능을 지닌 석탑에 새로히 마련된 한 양식적 변천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들의 배치형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각상의 主題 또한 변화되고 있다. 특히 觀德洞 석탑의 경우 초층기단 각면은 탕주나 좌우에 飛天을 등장시키고 상층기단은 탕주로 兩分된 면적 각면의 좌측에는 四天王 우측에 天部像, 그리고 초층옥신에는 보살입상<sup>39)</sup>을 등장시킨 특수형식이다. 이는 종래까지 수직적 上下관계에 있는 신라석탑에 야기된 새로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두터운 眼象속에 四天王이 등장되는 僧燒谷石塔 같은 경우 외호기능 속에 장식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 역시 탑과 부조상의 새로운 변화형식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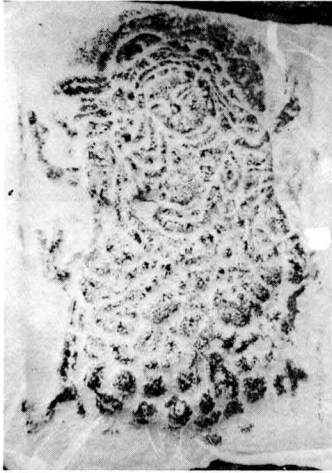


圖17 75. 6. 6. 수도암 서3층 석탑 보살 공양상탁본(西面)



圖18 泛鶴里三層石塔南面像 및 八部像



圖19 中興寺址三層石塔 南西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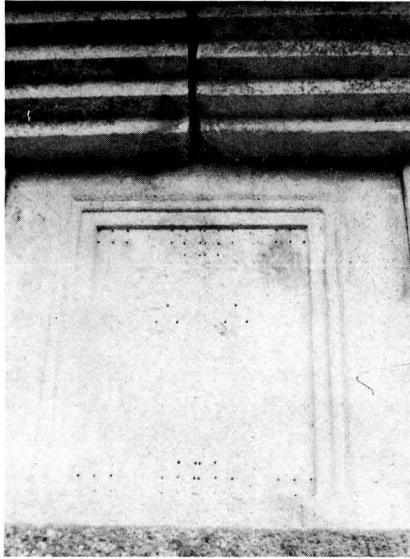


圖20 75. 5. 5. 경주 高仙寺址石塔門 扉莊嚴孔



圖21 75. 5. 5. 경주 암곡동 무장 사지석탑 眼象



圖22 梵魚寺石塔眼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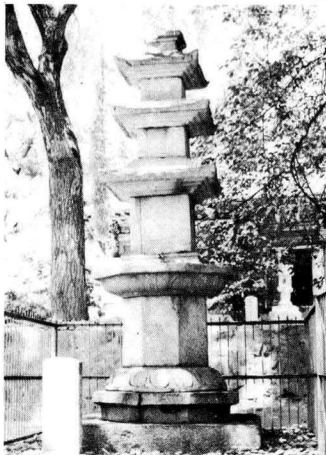


圖23 75. 6. 14. 철원도피안



圖24 南山 檜燒谷三層石塔

그러므로 이같은 부조상의 양식 변천은 탑과의 類型에 따르는 機能에의 변화를 뜻하는 것임과 동시 넓은 의미로 신라 탑과의 형식변화라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고려에까지 전승되었으나 浮彫像의 등장은 前代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대신 蓮華紋眼象 등으로 탑파를 장식하는 手法이 더욱 성행하였다고 하겠다.

#### 四、結 論

지금까지 우리들은 八세기 전반에서부터 九세기 후기에 걸친 총三四기의 浮彫像을 지닌 新羅石塔을 몇가지 類型別로 나누어 고찰해왔다. 부조상을 지닌 석탑을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니 세부적 양식 고찰에는 소홀한 느낌이 없지 않았으나 일단 이들의 형식 파악 및 양식변천에 정리를 기한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로써 결론지을 수 있겠다.

첫째, 新羅石塔 浮彫像은 佛塔 내부에 봉안된 佛舍利에 대한 外護의 기능에 一位의 목적을 지니고서 이룩되었다고 하겠으며, 둘째, 그것은 외호적 기능은 시대가 내려오면서 複合的機能으로 전개된 나머지 다양한 조형작품을 등장시키고 있으나 그 질정기는 역시 新羅盛期 八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되었으며, 셋째, 이들은 方型에 重層을 기본으로 하는 신라 석탑에 잘 조화됨으로써 上下 수직적 연관, 또는 종교적 敎義 속에서 발전해왔으며, 넷째, 이같은 수직관계를 평면적 展開로 볼 때는 吐含山 석굴암의 배치방식에도 기본적인 도는 일치하는 것으로 들어맞으며 다섯째, 이들 부조상의 양식변천은 탑파의 신앙이 강조되는 보다 후기에 이르러 四方佛의 등장과 같은 더욱 다양한 전개를 가져오고 있으며, 여섯째, 결국 九세기 이후에 이르러서는 상하개념 속에 전개되었던 부조상의 형식에 다소간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쇠퇴한 말기적 양식은 한 시대의 終焉과 함께 이후 고려시대의 공예적 석탑,

또는 새로운 양식의 탄생을 낳게하는 자극제가 되었다고 하겠다. 끝으로 이들 부조상을 지닌 석탑들이 고구려나 백제의 故土에서는 보기 어렵고 유독 신라 國都를 중심으로 하여 이룩된 것은 사회경제사적 위치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諸像, 특히 八部衆의 명칭에 따르는 교리적 해석 또는 양식적 고찰과 함께 十二支 등 방위에 따르는 四方佛의 고찰 등은 앞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더욱 추구되어야 하겠다. 다만 이곳에서는 석탑 부조상의 조형적 의미와 함께 類型分類에 따르는 종합적 고찰에 제한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들 부조상의 실측과 도면 작성에 수고한 鄭敬容·鄭炳國兩君, 또한 조사에 참여하였던 佛敎美術學科 교수 학생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할 뿐이다.

(1982, 4)

- ①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秦弘燮「石塔 표면의 裝飾彫刻」韓國의 美 9 「石塔」(中央日報·東洋放送 一九八〇、一)、文明大「韓國塔婆浮彫(彫刻)像의 研究」『佛敎美術』제 4·5호(東國大博物館 1979, 1980) 등이 있다. 前者는 通時代의 으로 넓게 다루었고 後者에서는 新羅 仁王像 및 四天王을 다루었다.
- ② 現存 石塔中에서도 類型分類가 가능한 석탑, 최소한 基壇과 初層屋身을 지닌 것에 제한하였다.
- ③ 佛法을 守護하는 金剛神으로서 密迹金剛·那羅延金剛을 말한다.
- ④ 拙稿「韓國佛塔散考」(佛敎研究院會報, 一九七九)
- ⑤ 이를 南北塔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寺址 조사에서는 석탑의 방향이 동남간 四五度에 위치하고 있었다.
- ⑥ 이같은 변화는 일단 方型을 원칙으로 하는 신라 석탑의 造形的 의미로서 받아들여고자 한다.
- ⑦ 대체로 이후에 나타나는 仁王像은 다른 造形들과 복합적 기능을 지니고서 塔身 正面에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華嚴寺四獅子石塔, 中興山城石塔 등의 예를 들 수 있겠으나 경주 西岳三層石塔과 같은 仁王 단독상일 경우 남쪽 正面에만 仁王을 등장시키고 있다.

⑧ 물론 경주 박물관 인왕상(8구)의 경우, 또는蔚州潤月寺東西廢塔(도합 16구)과 같은 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역시 前代의 영향을 계승하는 흔치 않은 예이고 4면에 모두 인왕상을 적용시키는 경우는 줄어들었다고 하겠다.

⑨ 大寶積經 第九 密迹金剛力士會  
 ⑩ 東方持國天·南方增長天·西方廣目天·北方多聞天  
 ⑪ 長阿含經第六

⑫ 金光明 最勝王經第六 四天王護國品  
 ⑬ 法華經戒環解第一卷, 持國天·乾闥婆·富單那·增長天·薛荔多·鳩槃荼·廣目天·毒龍·毗舍闍, 多聞天·羅刹·夜叉  
 仁王護國般若經疏, 持國天·乾闥婆·毘舍闍, 增長天·鳩槃荼·薛荔多·廣目天·龍·富單那, 多聞天·夜叉·羅刹을 거느린다 하여 兩經히 持國天 가운데 富單那와 毘舍闍가 混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⑭ 前掲 法華經戒環解 참조.  
 ⑮ 千支에 대하여는 꼭 일정하지는 않으나 藥師本願功德經 및 妙見菩薩神呪經 등의 설을 따라 정리한다.

⑯ 이는 후대의 佛像腹藏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 東(靑)·西(白)·南(赤)·北(黑)·中央(黃)의 표시를 기록하기도 한다.  
 ⑰ 三國遺事卷三 臺山五萬眞身條에서는 東觀音(一萬眞身)·南地藏(一萬)·西無量壽(一萬勢至)·北釋迦(五百阿羅漢)·中毘盧遮那(一萬文殊)를 열거한다.  
 ⑱ 舍利莊嚴에 대한 글로서는 拙稿 新羅時代 塔婆舍利莊嚴에 대하여(『白山學報』第21號)가 있다.

⑲ 仁王이 靑 門扉를 동반하는 것은 분황사 석탑의 先例 또는 仁王의 교리적 해석을 따르는 것이 하겠다.  
 ⑳ 拙稿 新羅模磚石塔系 樣式의 考察 참조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원소 학술회의 발표요지 1981, 10)

㉑ 이들에 대하여는 기존 박물관 소장품 외에 필자가 過眼한 것을 열거하면 경주 九皇洞仁王(二子), 塔身四天王, 경주 城東洞塔身方佛, 傳虎願寺 塔身四方佛, 尙州天人像(中石), 原州 塔身四方佛, 原州 塔身四天王 등을 들 수 있다.

㉒ 秦弘燮 『安東臨河洞三層石塔內 舍利藏置』 『考古美術』 제66호 참조  
 ㉓ 그 대표적 예는 陳田寺址 三層石塔과 華嚴寺 獅子塔을 들 수 있겠다. 전자는 8구, 후자는 12구의 천인상을 볼 수 있으나 모두 秦樂像 또는 供養像이다.

㉔ 醴泉東本洞三層石塔

㉕ 光陽 中興寺址 三層石塔

㉖ 초층 옥신에 四方佛을 등장시킨 대표적 석탑은 陳田寺址 三層石塔·靑岩寺 修道庵東三層石塔, 中興寺址 三層石塔, 그리고 보살상으로는 山淸 泛鶴里三層石塔, 靑岩寺 修道庵西三層石塔 등을 들 수 있겠다.

㉗ 華嚴寺 獅子塔  
 ㉘ 醴泉東本洞三層石塔  
 ㉙ 경주 西岳三層石塔

㉚ 이를 전달바로 보는 것은 陳田寺塔의 경우 篋篋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과 함께 그 배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㉛ 西藏佛教版畫(華岡博物館, 1978年刊)에서는 입에 연주를 문새의 모습을 迦樓羅(GARUDA)라고 하였으나 석탑 팔부중의 경우 새의 부리를 한 부조상(특히 경주 박물관 소장 昌林寺石塔基壇八部衆石) 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㉜ 이같은 배치는 경주 박물관 회랑의 석탑 팔부중에서도 일치되고 있다.  
 ㉝ 六欲天이라고도 하며 四王天·忉利天·夜摩天·兜率天·化樂天·地化自在天을 말한다. 이들중 四王天은 수미산의 中腹사방에 위치하고 도리천은 수미산의 꼭대기에 帝釋天을 중심으로 사방 八天씩 있으므로 소위 33天이라 한다. 그러므로 도리천까지를 地居天이라 하고 그 이상은 공중에 있으므로 空居天이라 하여 상하게념을 낳고 있다.

㉞ 물론 이 十二支가 塔婆의 方位를 상징하고 있는 方位獸로서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불교의 輪廻를 설명하는 輪廻獸로서의 해석에 더욱 접근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은 후대의 高麗 華嚴經 版畫에서 더욱 寫實的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餘他 地獄·餓鬼 등은 佛塔의 基壇 아랫쪽 보다 깊숙한 보이지 않는 곳에 상징적으로 內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㉟ 이러한 형식은 華嚴寺四獅子塔을 그 대표로 들 수 있겠다.  
 ㊱ 이들 兩塔의 建립을 同一年代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조형양식에 있어서는 판이하므로 보다 후대의 建립으로 추정되는 소위 北塔과 함께 이곳의 특수한 가람배치에 대하여는 차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㊲ 이들의 형태는 도면에서 보는 바와같이 持物·象徴獸 등에서 뿐 아니라 세부양식에도 차이점을 볼 수 있다.  
 ㊳ 이 석탑은 지금까지의 四方佛을 등장시키던 탑신에 遊喜座의 보살상을 배치하였고 또 상층기단 八部衆 역시 종내의 형식에서 변화되었다고 하겠다.

㊴ 韓國의 美9 『石塔』도면 44 및 P·227 해설 참조.